

# 여성장애인 노동시장 진입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 A Longitudinal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for the Labor Market Entry of Disabled Women

박미희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Mi-Hee Park(parkmh3211@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3차부터 7차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사건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건사분석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떠한 변화유형을 나타내는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업기간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의 변화를 생명표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장 미취업기간(4년)까지 미취업상태로 남아있는 비율은 90%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콕스회귀분석을 한 결과 기초수급 여부, 장애정도, 구직 시 차별경험 요인이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여성장애인 | 미취업 | 노동시장 진입 | 사건사 분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grasp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labor market entry of disabled women,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support the labor market entry of them. This article utilized the survey data of the 3rd to the 7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in 2010-2014(by PSED), which is a longitudinal survey for the disabled in Korea. I analyzed the pattern changes of the labor market entry of them with the passage of year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at by the event history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life table analysis involved in change of the labor market entry, 90% of them continued to remain the longest period of unemployment for four years and the labor market entry rate was only 10% of them. Second, the result of Cox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public benefit recipient or not, the degree of disability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 at the job market were factors to affect the labor market entry. With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practical alternatives to improve the labor market entry of disabled women.

■ keyword : | Disabled Women | Unemployment | Labor Market Entry | Event History Analysis |

## 1. 서론

오늘날 사회는 인간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일이 되었다. 즉, 직업을 갖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1].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 제약을 받는 취업취약계층이 다수 존재한다. 장애인, 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은 대표적인 취업취약계층이다[2].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경우 15세 이상 1백2만7천 명 중 21.0%인 21만5천명이 취업을 하고 있으며, 남성장애인은 1백41만6천 명 중 44.7%인 63만3천명이 취업자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7]. 이러한 현상은 여성장애인에게 대한 올바른 인식부족, 사회적 무관심,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3].

특히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적 요건으로 생계유지 수단과 생활방편을 마련하는 직업과 관련해서도 남성장애인이나 비장애여성보다 매우 제한된 기회와 환경으로 인하여 동등한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4]. 취업을 하여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소득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존과 직접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인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의 보장 및 자아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취업 및 고용의 상태에 도달하고 유지하는 것은 성별, 장애여부와 정도, 유형 등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하다[5].

이처럼 직업의 중요성을 볼 때, 여성장애인에게 직업은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며,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활동기회를 높여 개인 내적 자원과 환경적 자원을 제공 받음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6].

2015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이 60.9%를

차지하는데 비해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약 84만 9천명으로 34.8%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실업률 3.8%에 비해 장애인 실업률은 7.9%로 전체 인구의 실업률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이는 장애인의 고용여건이 매우 열악함과 고용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또한 2014년 대비 장애인의 고용률은 2.2%p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1.3%p 상승하였으나,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고용률(0.1%p)과 실업률(0.2%p)은 각각 상승하였다[8]. 이러한 장애인의 낮은 취업률과 고실업의 원인으로 생산성과 차별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하고 연구한 결과, 교육수준, 직업훈련 등의 생산성요인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단지 기능제한 정도가 영향을 미치고 차별요인이 장애인의 실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동철[9]의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34%의 장애인이 취업 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문화, 의료 등 타 영역에 비해 차별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있게 된 원인 중 가장 많이 응답한 원인이 장애인 차별과 선입견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이와 같이 차별적 요인에 의한 고용상의 문제는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여러 문제 중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서, 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1.0%로 남성장애인 고용률 44.7%[8]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며, 성별에 따른 고용률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은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에 장애와 여성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존재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듯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 관련 연구가 현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연구는 취업의 양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결과를 강조한 양적 확대 연구가 주를 이루며, 특정시기의 횡단자료 분석이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횡단자료 분석은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의 변화

과정을 제대로 포착하고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정시점에서 대상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동시장 진입의 변화에 대한 특성이 라고 단정하여 해석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다. 반면, 종 단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동시장 진 입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매우 적합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사건사분석을 통해 특정시점이 아닌 일정정도의 시간동안 여성장애 인의 노동시장 진입상태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노동시장 진입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노동시장 진입(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따 라서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연구문제 1.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률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변화유형을 나타내 는가?

연구문제 2.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에 미치는 인 구학적 요인, 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 환 경요인의 영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 및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인적자본이론과 통계 적 차별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이 있다.

첫째, 인적자본론은 교육, 직업훈련, 자격취득 등의 활동을 통해 인적자본이 더 많이 축적된 사람이 노동시 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11]. 이는 장애 인 개인의 취업여부나 임금수준의 차이는 그 개인의 생 산성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동시에 그들의 생산성은 교육, 직업훈련, 경력, 건강 등에 대한 투자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한다[12].

인적자본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는 학교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의 습득, 직 장에서의 근무능력을 통한 전문지식의 습득 등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인 비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인적자본투자의 절대량이 비장애 인에 비해 낮을 수 있다[13]. 이렇듯 인적자본이 적으면 고학력, 고숙련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에 취업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는 고용주가 장애인을 고용함으 로써 지불하게 되는 추가적인 간접비용(예, 안전 및 편 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면 고용주는 장애 인의 고용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14].

이는 취약한 인적자본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노동시 장에 진입하는데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진입할 가능성 이 낮아지며, 인적자본 이외에 차별과 배제라는 환경적 요인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통계적 차별론은 산업사회에서 장애가 고용여 부를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되어왔고 이에 따 라 장애인에 대한 취업기회가 제한되었다는 이론이다 [15]. 이 통계적 차별론은 Phelps(1972)와 Aigner와 Cain(1977) 등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로 고용주가 노동 자에 대한 불완전 정보를 직면하게 될 때 차별이 발생 한다고 본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할 때 개 인의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성 (sex)이나 인종, 장애 등으로 구분된 집단에서 추정되 는 평균적인 생산성을 선발기준으로 삼는데, 이때 차 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16]. 즉, 고용주는 근로자의 잠재적 생산성을 쉽게 파악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성, 학력, 연령, 장애, 경력 등 개인적 특성을 채용 시 중요 한 기준으로 삼는데, 여기서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장애인 의 경우 이러한 통계적 차별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적 차별론에 따라 평균적인 생산성을 선발 기준으로 삼아 이를 특정 집단에 적용할 때, 해당 집단 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특성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적용한다면 이것 또한 차별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기 술이나 경력 면에서 매우 다양하며, 더욱이 같은 유형 의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편차가 커서 생산 성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 고용과정에서 적용하는 평 균적인 정보가 장애인 집단의 평균적인 생산성을 잘 반

영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17]. 이렇게 볼 때 장애인을 고용한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적은 고용주들이 장애인 집단으로부터 추정되는 평균적인 생산성을 적용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결정한다면 이는 선입견에 기인한 차별이 될 것이다.

셋째, 이중노동시장론은 뒤링거(Peter B. Doeringer)와 피오르(Micheal J. Piore)가 주장한 것으로 그들은 노동시장을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1차 노동시장(primary labor market)과 2차 노동시장(secondary labor market)으로 이중화 되어있다고 보았으며, 서로 다른 조건하에서 고용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18].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1차 노동시장은 고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승진, 보수, 책임, 권한, 지위 등이 경력과 함께 향상되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노무관리 등의 특징을 가진다. 1차 노동시장의 임금근로자들은 대부분 높은 임금을 받는다. 반면, 2차 노동시장은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승진기회의 결여, 현장훈련의 기회가 거의 없으며 노동자와 고용주와의 사적 관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 도시빈민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1차 노동시장과는 대조적으로 낮은 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이직이 잦다.

이렇게 노동시장을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구분하는 의미는 두 시장 사이의 근로자의 이동이 제한적이고 각각의 노동시장에 속한 근로자는 다른 조건하에서 서로 다른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16]. 이러한 이중노동시장에서 여성과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기능제한과 인적자본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2차 노동시장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적자본론에서 주장하는 교육의 기능을 무효화시키며, 교육이 기회를 평등하게 해준다는 주장에 반박한다. 오히려 교육은 '보다 나은' 노동시장과 '보다 열악한' 노동시장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한 개인이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보다 좋은 시장으로 이동하거나 안정된 경제부문으로 이동하는 데에 교육이 부분적인 설명 원인이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중노동시장론은 여성이 2차 노동시장에서 쉽게 발견되는 이유는, 교육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는 별로 전망을 제시하지 못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19].

이상과 같은 이론적 논의들을 종합할 때, 여성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분해본다면, 인구학적 요인, 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 환경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인구학적 요인이라 연령, 혼인 여부, 기초수급요인이며, 장애요인이라 장애정도, 장애 유형, 일상생활 타인도움정도이다. 인적자본요인이라 교육수준, 현재건강상태, 자격증, 고용서비스이용경험 요인이며, 환경요인은 일상생활 차별경험, 구직 시 차별 경험요인으로 들 수 있다.

## 2. 관련 선행연구 고찰

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1][10][21-26]는 이처럼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또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인이 가지는 차별에 대한 연구[18][27-31]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기존의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한 연구에서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보다 취업 가능성이 낮으며[13][17][20], 취업의 가능성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 도출되었다[10][18][30][32]. 이는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간에 발생하는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 또는 비장애여성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가 낮으며, 취업될 가능성 역시 남성 장애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연구되었다[33][34] 이러한 성차별은 사회구조적 현상으로 노동시장에 존재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성별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35].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먼저 연령 요인이 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이 높아진다[36-38]는 연구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모두 노동시장진입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39-43]의 연구가 있다. 이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감소, 나이 많은 노동자에 대한 부가비용의 증대에 따른 기업

의 소극적 태도, 지리적 이동의 상대적 어려움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44].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연령과 취업여부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혼인여부는 노동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인구학적 요인이다. 혼인여부가 노동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을수록, 기혼일수록 노동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들이[17][27][42][43][45-47] 보고되며, 이와 같이 기혼자일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는,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과 가족들의 지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기혼여성에게 부과되는 가사노동은 물론, 출산과 양육의 부담으로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참여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15][48]. 그러나 가족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크거나, 특히 가족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혼자 미혼자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49].

기초수급가구의 유무 또한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수급가구일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은 낮아지고, 실업상태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43][46]는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일정한 취업활동으로 소득이 발생 시 사회보장 급여가 감소되므로 취업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45]. 즉, 경제적 특설에 대한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장애인수급자의 경우 취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있는 실업상태를 선택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수급가구가 아닌 비수급상태의 장애인들이 취업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다[15][46][48].

장애요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장애인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집단이며, 또한 동일한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장애등급이나 장애유형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연구들 중 먼저 장애유형이 취업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로서 남정휘(2014)는 감각장애(15.63%), 신체외부장애(9.84%), 정신적 장애, 내부장애 순으로 노동시장 진

입률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이 외 연구들[10][21][26][50]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체장애에 비해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장애정도 역시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의 주요 요인으로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고제훈 외, 2015)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8%, 고용률은 18.4% 인데 반해 경증장애인은 각각 45.4%, 42.1%로 나타나 전년도(2014)와 같은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11.2%로 경증장애인(7.2%)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경증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중증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보다 노동시장 진입에 유리한 것으로[4][10][20][21][30][42][46][48][51-54] 이는 경증인 장애인이 일상생활의 제약정도와 타인의 도움필요여부가 낮은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가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이라고 선행연구[24][32][46][50][55]는 뒷받침하고 있다. Smith[56]는 그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장애 그 자체보다는 장애로 인하여 얼마나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가 더욱 중요한 요소라 제시했다. 취업에 있어서 어려움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일상생활에서의 도움필요정도가 장애인의 실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실업률을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인적자본 요인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에 대하여 인적자본론의 관점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수준은 개인의 능력을 반영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회수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노동시장 참가 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10]. 따라서 교육은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으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교육수준을 증가시키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노동시장 진입이 높아진다고 예상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26][40][57][58].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 때 취업확률이 높다는 연구[44]와 교육수준과 취업가능성이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18][30][59].

건강상태 요인에 주목한 연구로 신은경 외[60]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전영환 외[61]는 건강상태가 장애인의 노동시장 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장애인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따라서 노동시장 진입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4][21][46][54][58][62].

어수봉[36]을 비롯한 박지영[45]과 한애경 외[63]의 연구에서는 자격증보유 여부가 노동시장 진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노동시장 진입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반면, 남정휘[26]는 장애인의 실업탈출 요인 연구에서 자격증은 장애인의 실업탈출, 즉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강은나 외[22], 김용탁 외[64]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고용서비스 이용경험이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로는[21][45][63][65][66]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직과정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공식적, 제도적 통로보다는 주로 개인이나 친척 등 개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고용공단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55][53]. 이와 같은 결과는 고용서비스 이용 등 제도적 자원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요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장애인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상의 차별과 고용과 관련하여 구직 시 경험하는 차별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9][20][26][66][67].

여성 지적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관련 요인 연구에서 미취업자 집단의 경우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있다는 비중이 전체 수치보다 높은 반면, 취업자 집단의 경우는 낮은 것으로 드러나 미취업자 집단과 취업자 집단이

경험한 일상생활의 차별경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26].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다루면서 일부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을 다룬 연구[68], 여성장애인의 직업 활동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69], 여성장애인의 직업선택에 등에 대한 질적연구[5]는 노동시장 내 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이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66][69].

### I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목적인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과 진입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자료(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표본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의 표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패널자료가 필요하다. 장애인고용패널자료는 2008년을 기준으로 현재 7차(2014년 5월)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다. 만15세에서 75세까지의 장애인 5,09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고용상황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이 가능한 종단자료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연구목적에 수행하기 위해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 연구대상인 여성장애인 미취업집단을 추출해야 한다. 먼저,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례만을 추출하기 위해 3차년(2010년 5월)부터 7차년(2014년 5월)까지의 경제활동상태변수를 활용하였다. 3차년 이후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인 미취업자의 차별경험 관련 변수가 3차년부터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3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패널조사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 1585명을 추출하였다. 다음단계에서는 노동시장 진입의 이행과정을 보기위해 3차년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상태가 미취업 상태인 대상자를 선택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과정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연령대를 추출하기 위해 3차년 조사시점인 2010년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60세미만의 노동연령대로서 여성장애인 725명을 추출하여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 2.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빈도분석, 사건사분석의 생명표분석과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였다.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이용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미취업상태의 탈피율, 즉 노동시장 진입률과 요인별 탈피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생명표분석(Life table analysis)을 실시한다. 생명표분석을 통해 각 독립변수의 구성범주들이 시간(미취업기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생존율의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요인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취업상태의 탈피, 즉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예측력을 분석하고자 사건사분석 중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고자 한다.

### 사건사분석<sup>1)</sup>

사건사분석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상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다. 사건사분석은 동일표본의 지속적인 관찰에 의한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질적인 상태의 변화를 확률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70]. 이러한 분석은 어떠한 특정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의 길이(기간)를 분석하고 이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별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이용하는 분석이다. 또한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때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이 자주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연구 목적이 특정 시점에서의 취업 여부의 인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타당하다.

그러나 취업이라는 사건(event)과 동시에 지속 시간(time)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독립변수의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사건사분석이 적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점 이외에도 사건사분석은 종단 자료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중도절단(censoring)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중도절단이란 조사 기간이 종료된 이전에 조사대상자의 상실이나 분석 목적과 다른 사건으로 인한 조사 종료, 조사종료일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관찰이 중단되는 사례를 말한다[71]. 이런 경우 사건발생여부와는 무관하게 관찰을 종료해야 하는데, 관찰시점이후 발생하는 중도절단의 예를 우측중도절단(right censored)이라고 부른다. 우측 절단된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키면,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 문제를 줄이고,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우측중도절단의 경우 사건사분석에서는 흔히 겪게 되는 현상인데, 자료만 정확하게 처리한다면 통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72]. 본 연구도 패널자료의 특성상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표본이탈과 무응답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도절단(censor)된 자료로 처리하였다.

### 2.1 생명표분석(Life table analysis)

생명표분석은 어떤 특성을 가진 모집단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생존확률을 파악하거나 집단 간 생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73]. 사건사분석에서 생존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생명표분석과 카플란-마이어분석이 있는데, 생명표분석은 고정된 시간간격(fixed interval)을 적용하여 관찰 대상자의 수가 많을 때 적합한 분석방법이다[72].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상태로부터 노동시장진입(취업)까지의 탈피율의 변화를 보기위해 생명표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 독립변수의 구성범주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생존율(미취업유지율)과 탈피율(취업률)의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구성범주들이 가지는 생존율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다.

### 2.2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1972년 Cox가 제안한 비례위험모형(proportional

1) 일반적으로 통계학과 의학에서는 생존기간을 분석한다하여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며, 경제학에서는 지속기간분석(duration analysis), 사회과학에서는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이라고 부른다.

Hazard Model)은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과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결합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이나 다중회귀분석과 유사하나, 종속변인이 사건 발생까지의 기간과 사건 발생 여부, 2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73]. 즉,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콕스비례위험모형 모두 공변수가 특정사건의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사용되지만 로지스틱 모델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 그 사건의 발생여부가 종속변수인 반면, 콕스비례위험모델에서의 종속변수는 그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의 길이와 사건여부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사건사분석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생명표분석이나 카플란-마이어방법의 경우 독립변수의 범주에 따라 종속변수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만을 검정할 수 있었다면 콕스비례위험모형은 독립변인이 많을 경우 다른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면서 각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또한 중도탈락(censored)된 자료도 탈락 전 기간을 분석에 포함함으로써 자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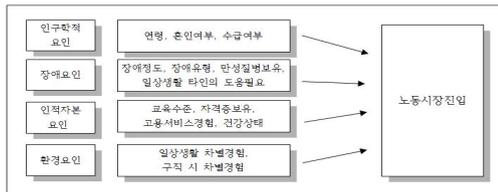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3. 변수구성

#### 3.1 종속변수

노동시장진입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노동시장진입 여부와 노동시장진입 소요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종속변수 중 하나인 노동시장진입 여부의 경우 실업 및 비경제활동과 같은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으로 이동한 상태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즉 노동시장진입여부는 사건발생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사건(취업)이 발생하면 '1',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미취업) '0'으로 처리하였다. 만약 7차년도까지 사건(취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측중도절단으로 처리하였다. 노

동시장진입(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의 경우 미취업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된 시점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진입이 발생한 기간까지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여 반영했다.

#### 3.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범주를 인구학적 요인, 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 환경요인으로 설정하였다.

##### 인구학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은 연령, 혼인여부, 수급여부로 구성하였다. 연령은 조사시점 당시 실제 연령을 범주화하여 투입하였다. 혼인여부는 배우자가 있는(결혼/동거)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사별/이혼) 경우로 구분해 미혼=1, 기혼=2로 더미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수급여부는 기초생활수급가구여부로 수급가구를 기준변수로 더미 처리하였다.

##### 장애요인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상의 15개 장애유형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4개 유형으로 구분(신체의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장애)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장애정도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중증을 기준변수로 더미 처리하였다. 또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1~4점까지로, “전혀 필요없다” ~ “매우 필요하다” 순으로 변수 처리하였다.

##### 인적자본요인

인적자본요인에는 교육수준, 자격증보유, 고용서비스 이용경험, 현재의 건강상태로 구성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이하(6년), 중졸(9년), 고졸(12년), 전문대이상(14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더미 처리하였으며, 자격증보유는 패널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보유여부로 설정하여 더미 처리하였다. 고용서비스이용경험 또한 패널이 경험한 고용서비스경험유무로 더미변수로 구분하였다.

##### 환경요인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전환되는 과정, 노동시

장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일상생활 차별 경험과 구직 시 차별경험변수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차별을 의미하고, 구직 시 차별경험은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 과정에서 차별을 받는 경험을 말한다. 차별경험이 있음=1, 차별경험 없음=2로 설정하여 더미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 구성 및 설명

항목	변수명	변수처리
종속 변수	노동시장진입여부 (취업여부)	취업=1, 미취업=0
	노동시장진입 소요기간	년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령	1:20대이하, 2:30대, 3:40대, 4:50대
	혼인여부	미혼:0, 기혼:1
	수급여부	수급:0, 비수급:1
장애 특성	장애유형	신체외부장애:0, 감각장애:1
	장애정도	정신적장애:2, 신체내부장애:3
	일상생활 타인도움필요	1~4점 (전혀 필요없다~매우 필요하다)
인적 자본 특성	교육년수	초졸이하:6, 중졸:9, 고졸:12, 전문대이상:14년이상
	건강상태	1~4점 (매우 좋지않다~매우 좋다)
	자격증보유	있음:0, 없음:1
	고용서비스이용경험	있음:0, 없음:1
환경 특성	일상생활차별경험	있음:0, 없음:1
	구직 시 차별경험	있음:0, 없음:1

#### IV. 분석결과

##### 1. 기술 분석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 725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의 인구학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연령은 29세 이하가 44명(6.1%)이고 39세 이하 87명(12.0%), 49세 이하 201명(27.7%), 그리고 59세 이하가 393명(5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장애인, 즉 기혼인 여성장애인이 319명(44.0%)이고 배우자가 없는 미혼인 여성장애인이 406명(56.0%)으로 미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수급여부는 수급대상자는 338명(46.6%)이며 비수급대상자는 387명(53.4%)으로 비수급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요인의 경우 중증장애가 421명(58.1%)으로 경증장애 304명(41.9%)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장애유형은 신체외부장애(401명, 55.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감각장애가 155명(21.4%), 정신적장애 103명(14.2%), 신체내부 66명(9.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는 “전혀 필요 없다” 104명(14.3%), “필요 없다” 216명(29.8%), “약간 필요하다” 225명(31.0%), “매우 필요하다”는 180명(24.8%)이며, Likert 4점 척도의 평균

표 2. 미취업 여성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내용	빈도	%
인구학적 특성	연령: 29세 이하, 30 ~ 39세	44명, 87명	6.1%, 12.0%
	40 ~ 49세, 50 ~ 59세	201명, 393명	27.7%, 54.2%
	혼인여부: 기혼, 미혼	319명, 406명	44.0%, 56.0%
	수급여부: 수급, 비수급	338명, 387명	46.6%, 53.4%
장애 특성	장애정도: 중증, 경증	421명, 304명	58.1%, 41.9%
	장애유형: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장애, 신체내부장애	401명, 155명, 103명, 66명	55.3%, 21.4%, 14.2%, 9.1%
	일상생활 타인도움필요: 1-4점 “전혀 필요없다” ~ “매우 필요하다”	104명, 216명, 225명, 180명	14.3%, 29.8%, 31.0%, 24.8%
인적 자본 특성	교육수준: 초등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이상	318명, 157명, 210명, 40명	43.9%, 21.7%, 29.0%, 5.5%
	자격증 보유: 있음, 없음	53명, 672명	7.3%, 92.7%
	고용서비스이용경험: 있음, 없음	109명, 616명	15.0%, 85.0%
	건강상태: 1-4점 “매우 좋지않다” ~ “매우 좋다”	109명, 388명, 223명, 5명	15.0%, 53.5%, 30.8%, 0.7%
환경 특성	일상생활 차별경험: 있음, 없음	490명, 235명	67.6%, 32.4%
	구직 시 차별경험: 있음, 없음	193명, 89명	68.4%, 31.6%

은 2.6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요인에 있어서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318명(43.9%), 중졸이 157명(21.7%), 고졸 210명(29.0%), 전문대 이상이 40명(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격증보유 대상자가 53명, 7.3%, 자격증 미보유 대상자는 672명, 92.7%로 여성장애인의 자격증 보유정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용서비스이용경험의 경우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109명, 15.0%, 이용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616명, 85.0%로 드러나 고용서비스이용경험 역시 낮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않다” 109명(15.0%), “좋지 않은 편이다” 388명(53.5%), “좋은 편이다” 223명(30.8%), “매우 좋다” 5명(0.7%)이며, Likert 4점 척도의 평균은 2.1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요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 유무와 관련하여 차별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490명(67.6%)이며,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235명(32.4%)이었다. 또한 구직 시 차별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193명, 68.4%이며, 차별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89명, 31.6%로 드러났다.

## 2. 미취업유지 및 노동시장 진입 가능

본 장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미취업상태 지속 추이에

대한 생존율과 노동시장진입 위험도를 생명표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생명표분석은 총 미취업대상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후에 인구학적 요인, 장애요인, 인적자본 요인, 환경요인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각 변수의 범주별 생존율 및 위험도 추이의 차이점에 대한 검증은 Wilcoxon 검정을 이용하여 전체(overall)와 속성 범주별(pairwise)로 비교하였다.

[표 3]은 최장 미취업기간이 4년인 미취업자의 미취업상태 지속추이에 대한 누적생존율과 노동시장진입 위험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 3]의 누적생존율은 미취업 여성장애인이 연구기간 종료까지의 기간 동안 노동시장 진입을 하지 못하고 미취업상태로 남아 있을 확률이 90%임을 보여준다. 한편, 1년이 지난 시점의 생존율(미취업유지율)이 97%, 2년이 지난 시점의 생존율이 94%, 3년이 지난 시점의 생존율이 91%이며, 4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90%로 나타났다. 이는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구간별 생존율이 증가하고 노동시장진입 위험도는 감소하는 것을 보아,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노동시장진입에 소요되는 기간의 경우 미취업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노동시장

표 3. 미취업기간에 따른 미취업유지율과 노동시장진입률 (단위: 년, %)

미취업기간 (년)	분석대상	노동진입자수	censored	누적생존율 (미취업비율)	위험률 (노동진입률)
0	725	0	0	1.00	.00
1	725	23	0	.97	.03
2	702	21	2	.94	.03
3	679	18	9	.91	.03
4	652	11	16	.90	.02

표 4. 미취업기간에 따른 미취업유지율과 노동시장진입률 (단위: 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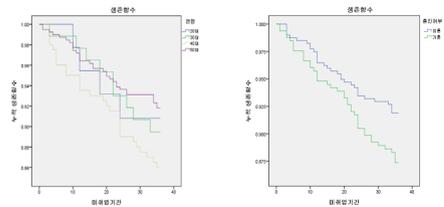
구분	미취업기간(월)											
	1-3	4-6	7-9	10-12	13-15	16-18	19-21	22-24	25-27	28-30	31~이상	전체
노동진입	14 (19.2)	4 (5.5)	13 (17.8)	3 (4.1)	4 (5.5)	7 (9.5)	12 (16.4)	3 (4.1)	4 (5.5)	2 (2.8)		73 (100)
미취업											652 (100)	652 (100)
전체	14 (1.9)	4 (0.6)	13 (1.8)	3 (0.4)	4 (0.6)	7 (0.9)	12 (1.6)	3 (0.4)	4 (0.6)	2 (0.3)	652 (89.9)	725 (100)

진입이 발생한 기간까지 소요된 시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미취업 3개월 내 취업에 성공한 대상자는 14명(19.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7~9개월(17.8%), 19~21개월(16.4%), 16~18개월(9.6%) 순으로, 22개월~30개월은 평균 3.0% 나타났다. 미취업 여성장애인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확률은 매우 낮으며, 30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장애인의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30개월 이후로 해서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률이 낮아지는 현상은 미취업자의 구성에서 상대적으로 취업할 의사가 낮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이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며, 더불어 구직과 취업준비 시 발생하는 장애차별로 인해 취업을 단념하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로도 유추할 수 있다. 실제 장애인고용공단의 2014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보면, 실업자의 경우 실업상태를 지속하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비율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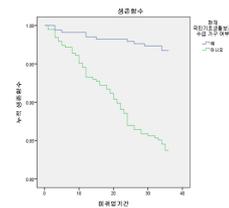
아래의 [그림 2]는 미취업자의 인구학적 요인별 누적 생존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 집단별 누적 생존율(미취업유지율)을 Wilcoxon(Gehan)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네 집단 간의 전체적인 유의성은 0.019로 ( $p < 0.05$ ) 집단 간 누적 생존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구체적으로 20대 이하 미취업유지율은 86%, 30대의 미취업유지율은 87%, 40대의 미취업유지율은 85%이며, 50대의 미취업유지율은 93%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에서는 20대, 30대, 40대의 노동시장진입률이 비슷한 반면, 50대의 노동시장진입률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혼인여부에 따른 집단 별 미취업유지율(누적 생존율)은 기혼자의 미취업유지율(87%)이 미혼자의 미취업유지율(92%)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Wilcoxon  $X^2=5.010$ ,  $df=1$ ,  $p < 0.025$ ). 기초수급여부는 미취업유지율을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수급대상자의 미취업

유지율이 비수급대상자의 미취업유지율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대상자는 96%의 생존율을 보이고, 비수급대상자는 84%로 10%이상 낮은 생존율을 보임으로써 집단 간 누적생존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Wilcoxon  $X^2 = 30.192$ ,  $df=1$ ,  $p < 0.001$ ). 이는 기초수급가구일수록 노동시장진입률이 낮아지고, 미취업상태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령 Wilcoxon chi-square=5.010,  $df=1$ ,  $p < 0.025$   
 혼인여부 Wilcoxon chi-square=9.931,  $df=3$ ,  $p < 0.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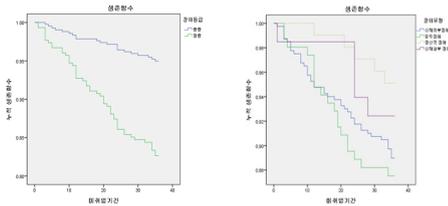


기초수급 Wilcoxon chi-square=30.192,  $df=1$ ,  $p < 0.001$   
**그림 2. 인구학적 요인별 누적생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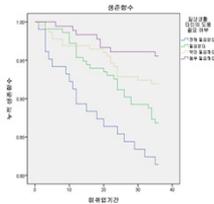
[그림 3]은 장애요인별 누적생존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장애요인 중, 장애정도에 따른 미취업유지율(누적 생존율)은 중증과 경증, 각각 94%와 84%를 보이며, 이는 중증이 경증에 비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낮음을 의미한다(Wilcoxon  $X^2=19.586$ ,  $df=1$ ,  $p < 0.001$ ). 즉, 중증일수록 미취업상태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장애유형별 미취업유지율(누적 생존율)은 신체외부와 감각장애의 미취업유지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장애와 신체내부 장애의 미취업유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외부, 감각장애보다 정신장애와 신체내부 장애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유형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김성희 외, 2011)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유형별로 드러나는 표시 및 인식정도가 다르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유형에 따른 고용주의 편견과 차별정도가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전체(overall) 장애유형 집단 간 Wilcoxon  $X^2$ 검정의 결과(4.413,  $p=0.220$ )는 그렇지 않으나, 감각장애 집단과 정신장애 집단 간 누적생존율의 수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p<0.05$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타인의 도움필요에 따른 미취업유지율(누적생존율) 수치를 살펴보면, “매우 필요하다”(96%), “약간 필요하다”(94%), “필요 없다”(84%), “전혀 필요없다”(8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Wilcoxon  $X^2=25.166$ ,  $df=3$ ,  $p<0.001$ ). 이는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등급 Wilcoxon chi-square=19.586,  $df=1$ ,  $p<0.001$   
 장애유형 Wilcoxon chi-square=4.413,  $df=3$ ,  $p<0.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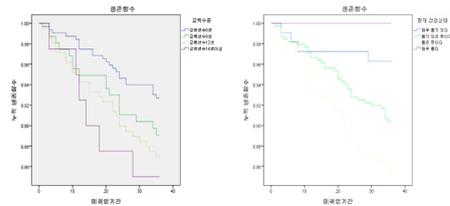
도움정도 Wilcoxon chi-square=25.166  $df=3$ ,  $p<0.001$

그림 3. 장애요인별 누적생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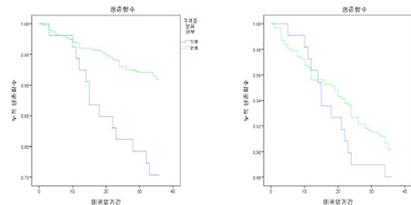
[그림 4]는 미취업자의 인적자본요인별 미취업유지율(누적생존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 집단별 미취업유지율은 초졸 이하(93%), 중졸(90%), 고졸(87%), 전문대졸이상(80%) 순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누적생존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취업으로부터 탈피하는데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overall) 교육수준의 집단 간 Wilcoxon 검정의 결과도 유의미하고, 초졸 이

하와 고졸, 초졸 이하와 전문대졸이상의 집단 간 누적생존율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p<0.010$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림은 자격증보유 대상자의 미취업유지율(82%)이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대상자의 미취업유지율(90%)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고용서비스이용경험에 따른 분석결과는 고용서비스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미취업유지율(91%), 고용서비스이용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미취업유지율(90%)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다( $p<0.757$ ). 마지막으로 현재 건강상태에 따른 미취업유지율을 살펴보면, “매우 좋지 않다”(97%), “좋지 않은 편이다”(91%), “좋은 편이다”(8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Wilcoxon  $X^2=15.662$ ,  $df=3$ ,  $p<0.001$ ). 이는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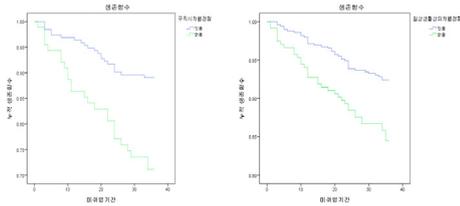
교육수준 Wilcoxon chi-square=11.359  $df=3$ ,  $p<0.010$   
 현재건강 Wilcoxon chi-square=15.662  $df=3$ ,  $p<0.001$



자격증 Wilcoxon chi-square=0.095,  $df=1$ ,  $p<0.757$   
 고용서비스 Wilcoxon chi-square=3.264  $df=1$ ,  $p<0.071$

그림 4. 인적자본요인별 누적생존율 추이

[그림 5]는 미취업자의 환경요인별 미취업유지율(누적생존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구직시 차별경험여부에 따른 집단별 미취업자의 미취업유지율 변화 추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



구직시 Wilcoxon chi-square=10.596, df=1, p<0.001  
 일상생활 Wilcoxon chi-square=14.473, df=1, p<0.000

그림 5. 환경요인별누적생존율 추이

직 시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경험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누적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Wilcoxon  $X^2 = 10.596$ ,  $df=1$ ,  $p<0.001$ ). 구직 시 차별경험집단의 미취업유지율 90%이고, 차별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는 76%로 약 14%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구직 시 차별을 경험할 경우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차별경험여부별 미취업유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의 미취업유지율은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있다”로 응답한 대상자의 미취업유지율은 93%이고, 차별경험이 “없다”로 응답한 대상자의 미취업유지율은 84%로 9%정도 낮다. 이러한 결과는 구직 시 차별을 경험하고,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할 때 상대적으로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의 차별경험보다 구직 시 차별경험여부에 따라 두 집단 간의 미취업유지율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미취업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 환경요인별로 투입하여 콕스 회귀분석(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진입(취업)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사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표 5]와 같다. 인구학적 요인에서는 기초수급가구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요인에서는 장애정도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적자본요인인 교육수준과 자격증, 고용서비스이용경험, 건강상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요인에는 구직 시 차별경험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학적 요인 중 기초수급여부변수가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동하는데 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수급가구가 수급가구에 비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비율이 3.342배(334.2% 증가) 더 높았으며,  $p<0.01$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급대상자

표 5. 미취업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B		표준오차	Exp(B)
인구학적 특성	연령	-.216		.198	.806
	기초수급가구(수급)	1.207	**	.413	3.342
	혼인여부	.048		.325	1.049
장애특성	장애정도(중증)	.796	*	.416	2.216
	장애유형	.107		.186	1.112
	일상생활 타인도움필요	.058		.187	1.059
인적자본 특성	교육수준	-.007		.189	.994
	자격증	-.490		.408	.613
	고용서비스이용경험	-.333		.398	.717
	건강상태	.080		.263	1.083
환경특성	구직 시 차별경험(있음)	.969	*	.441	2.635
	일상생활 차별경험	-.402		.455	.669
df		13			
-2 Log 우도		510.366			
Chi-square		34.253**			
사례수		725			

\*p<0.05 \*\*p<0.01 \*\*\*p<0.001 ( ) 기준변수.

일수록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확률은 낮아지고 미취업 상태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수급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늘어난 소득만큼 기초생활보장 소득이 차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제도의 한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애요인과 관련하여 장애정도변수도 노동시장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경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취업 비율이 2.216배(221.6% 증가) 더 높았다. 이는 중증장애가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4][10][20][35][42][46][48][51][54]들과 유사한 결과로, 여성장애인으로서 중증장애인 경우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데 매우 불리하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준 결과이다.

인적자본론에 의하면 교육, 자격증, 고용서비스이용 경험, 건강상태 등의 개인의 능력을 가능하는 지표인 인적자본은 실업률을 낮추고, 취업률을 높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인적자본은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인적자본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선행연구[17][20][30][45][50]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기존연구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으며, 취업한 대부분의 일자리가 단순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및 자격증 그리고 제도적 고용서비스의 적절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유추된다. 이러한 직종은 상당히 열악하여 인적자본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분야이다.

반면 실제 장애인의 취업과 차별에 대한 연구 [4][9][35][67]에서 밝혔듯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인적자본에 대한 저평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요인인 구직 시 차별경험은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구직 시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해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 할 비율이 2.635배(263.5% 증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별요인에 대한 분석은 [1][9]의 연구에서 차

별요인이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및 차별에 관한 연구 [35]와 여성장애인의 이종차별에 대한 연구 [30]에서 성차별과 장애차별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기존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sup>2)</sup>

## V. 결과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여성장애인의 미취업상태 지속추이에 대한 생존율과 노동시장진입 위험도를 생명표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장 미취업기간 4년까지 미취업자가 미취업상태로 남아있는 비율은 90%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미취업유지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노동시장진입률은 2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노동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기초수급대상자에 비해 비수급대상자일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연령과 취업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진입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한편으론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진입 확률이 높다는 결과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의 연령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관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점점 인구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실에서 여성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여성장애인 증가추세, 여성장애인의 빈곤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기에 이를 대비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즉 여성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과 그 특성에 따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이 연구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남성장애인과 차이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남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영향요인은 기초수급여부와 현재건강상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는 중증에 비해 경증일수록 노동시장진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장애유형 관련 변수 및 일상생활 타인도움정도는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수준, 자격증보유, 고용서비스이용경험, 건강상태의 인적자본 변수들은 노동시장 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요인에서는 구직 시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동시장진입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적 함의는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자격증보유 및 고용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여성장애인의 특성 및 정보접근성을 반영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더불어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구직 시 차별을 개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 생명표분석에서 드러났듯이 교육수준이 다른 집단 간 노동시장진입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장애인이 취업하는 대부분의 직종이 단순노무직으로 교육 인적자본이 크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은 교육수준은 직업교육 및 취업 등 사회참여에 있어서 여성장애인들에게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이 의무교육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졸 이하가 43.9%, 중졸이 21.7%인 수준이다. 특히 의무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초졸 이하가 43.9%로, 이는 여성장애인이 교육기회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의무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이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으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교육수준을 증가시키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노동시장 진입

이 높아진다는 예측과,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를 보아도 의무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는 정책화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서 훨씬 낮은 교육수준으로 말미암아 사회복지를 위한 준비가 어려운 실정이다[5][69].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노동시장 진입에 상당히 중요하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자격증 및 고용서비스이용 등 인적자본의 취약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자격증 취득과 고용서비스이용경험이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45][63].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자격증보유(7.3%) 수준과 고용서비스이용경험(15.0%) 사례가 미비하고, 통계학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남경휘[4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여성장애인이 취업을 하고자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이유이며[7], 경제적 소득을 얻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면서, 실제 희망직종은 주로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직 같은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로 응답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학력 및 미비한 자격증보유 수준, 저조한 고용서비스이용 수준 등 인적자본의 취약성으로 인한 편중된 취업 직종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체에 고용된 여성장애인 대부분이 공식적, 제도적 통로보다는 주로 개인이나 친척 등 개인적 자원에 의존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여성장애인이 제도적 고용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용서비스의 지원 사업이나 정보 자체가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연구로 박자경[66]은 여성장애인 대부분은 비공식적 지원 체계,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지 등의 도움으로 구직을 시도하며 이는 공공과 민간의 구직정보 및 고용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므로 구직정보를 포함한 고용서비스이용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이용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용자 중심의 정책적 대안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구직 시 차별, 즉 고용차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구직 시 차별경험을 한 여성장애인은 노동시장 진입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구직 시 장애차별 해소가 매우 중요함을 뜻하며,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현상을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제시하는데, 하나는 장애에 대한 차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gender) 차별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연구, 즉 이종차별에 대한 연구에서 장애와 성에 대한 차별의 크기를 비교할 때 성차별보다는 장애차별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이다[17][35].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고용문제에 접근할 때 성차별 해소보다는 장애차별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이는 제도나 고용서비스에서 장애차별과 편견의 해소를 더 선행과제로 인식하는 결과로 나타났다[75]. 이러한 현상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한 각종 제도나 고용서비스에서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성장애인의 고용정책을 ‘여성’이라는 젠더 측면과 ‘장애’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제도나 고용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 취업 관련 연구[24][44][45][74]는 인적자본(교육, 자격증, 고용서비스)요인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와 차이가 있는 결과로서,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관한 인적자본의 영향력 정도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차 자료를 분석한 본 연구는 독립변수를 설정함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의 취업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변수를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중단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단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진입의 영향요인을 밝히 고자 하였다. 점과 중단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진입의 변화과정을 역동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 문헌

- [1] 이선우,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33권, pp.287-313, 1997.
- [2] 이주희,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유지 영향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3] 황아윤, *여성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진입 확대 방안*, EDI 연구과제발표회, 321-396, 2007.
- [4] 오혜경,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판사회정책, 제13권, pp.113-146, 2002b.
- [5] 박지영, “여성장애인의 직업 선택 및 유지과정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2006.
- [6] 신유리, “여성장애인의 직업활동에서의 적응유연성 과정에 관한 연구,” 장애와 복지, 제17권, pp.17-41, 2012.
- [7] 고제훈, 김종미, 김호진, 김성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 [8]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14.
- [9] 유동철, “여성지체장애인에 대한 이종차별 분석: 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15권, pp.73-108, 2002.
- [10] 김성희,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결정요인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11] 홍성표, 정진철, “자격취득이 장애인 재취업 및 구직기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제25권, 제3호, pp.169-196, 2015.
- [12] 이정우, *불평등의 경제학*, 서울: 후마니타스, 2010.
- [13] 강동욱, “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2호, pp.121-144, 2004.
- [14] 서진숙, 김관용, “신체 내부기관 장애인의 취업 결정요인,” 장애와 고용, 제22권, 제4권, pp.241-266, 2014.
- [15] 김성희, “장애인의 취업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제9권, pp.137-167, 2010.
- [16] 이경우, 불평등의 경제학, 서울: 후마니타스, 2010.
- [17] 유동철,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 영향분석: 지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18] 강동욱, “노동시장의 여성장애인 이중차별구조,” 사회복지정책, 제15권, pp.7-3, 2002.
- [19] 소콜로프 나탈리 J, 여성노동 시장이론, 이효재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0.
- [20] 전이상, 장애인 취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21] 류정진, 나운환, “장애인 취업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2호, pp.167-193, 2006.
- [22] 강은나, 맹진영, “실업 장애인의 구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21권, 제2호, pp.103-129, 2011.
- [23] 백종남, 임경원, “지적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수교육학연구, 제47권, 제3호, pp.65-91, 2012.
- [24] 김정아, 나운환, 김지민,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52권, 제4호, pp.321-338, 2013.
- [25] 김정호,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26] 남정휘,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직업유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27] M. Baldwin and W. G. Johnson,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m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pp.1-19, 1994.
- [28] 황수경, “장애인-비장애인의 취업확률 격차와 장애효과,” 노동정책연구, 제3권, 제1호, pp.141-169, 2003.
- [29] M. E. Capella, “Comparing employment outcome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consumers with hearing loss to other consumers and the general labor force,”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Vol.47, No.1, pp.24-33, 2003.
- [30] 백은령, 오혜경, 전동일, “여성장애인의 취업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17권, 제1호, pp.223-248, 2007.
- [31] 유완식, 유은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기본과제보고서, pp.1-188, 2013.
- [32] 이선우, “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Multinomial Logit (다항로짓) 을 이용한 분석,” 사회복지연구, 제18권, pp.113-135, 2001.
- [33] K. Rabren, G. Hall, and C. Brown, “Employment of transition-age rehabilitation consumers: Demographic and programmatic factor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18, No.3, pp.145-152, 2003.
- [34] D. S. Randolph and E. M. Andresen, “Disability, gender, and unemployment relationships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Disability & Society, 제19권, 제4호 pp.403-414, 2004.
- [35] 류정진, 나운환, 박자경,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인식과 채용결정요인,”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6권, 제3호, pp.375-391, 2005.
- [36] 어수봉,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 장애와 고용, 제6권, 제1호, pp.23-37, 1999.
- [37] 박경숙, 박능후,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경기도 여성정책과, Vol.2, 2001.
- [38] 성지미, 안주엽,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6권, 제1호, pp.39-74, 2006.
- [39] 성효용, 김민경, “여성의 미취업탈출요인에 대한

- 연구: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65권, 제2호, pp.117-148, 2003.
- [40] T. L. Blackwell, S. J. Leierer, S. Haupt, and A. Kampitsis, “Predictor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return-to-work outcomes in workers compensation,”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Vol.46, No.2, pp.108-114, 2006.
- [41] 김학주, 우경숙, “중, 고령자의 재취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4권, 제2호, pp.97-110, 2004.
- [42] 강동욱, “장애인의 경제활동실태와 향후 정책적 개선방안-장애정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0권, 제3호, pp.145-171, 2004.
- [43] 남정휘, 강민수, “장애인의 재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24권, 제4호, pp.27-49, 2014.
- [44] 노승현, “고령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중단적 연구,” *장애와 고용*, 제22권, 제3권, pp.51-82, 2012.
- [45] 광지영,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20권, 제1호, pp.79-104, 2010.
- [46] 이문정, 남정휘, 이성하, “여성 지적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지적장애연구*, 제16권, 제1호, pp.351-366, 2014.
- [47] 남정휘, “장애유형별 노동시장 진입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53권, 제1호, pp.43-65, 2014.
- [48] 정병오,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복지행정논총*, 제20권, 제2호, pp.143-174, 2010.
- [49] 장지연, 황덕순, 은수미, *노동 시장 구조 와 사회보장 체계 의 정합*, 한국 노동 연구원, 2011.
- [50] 강동욱, “장애인 노동시장 내부의 분단성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21권(단일호), pp.111-128, 2005.
- [51] M. Feuerstein, W. S. Shaw, A. E. Lincoln, V. I. Miller, and P. M. Wood, “Clinical and workplace factors associated with a return to modified duty in work-related upper extremity disorders,” *Pain*, Vol.102, No.1, pp.51-61, 2003.
- [52] 석말숙, “임금근로 장애인의 근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제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461-493, 2009.
- [53] 이달엽, “우리나라 장애인고용패널의 주요 특성, 장애수용, 일상생활 만족도,”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제56권, 제1호, pp.159-185, 2013.
- [54] 김경선, 김영식, 정소라, “경향점수 매칭과 재발 사건생존분석을 활용한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의 직업유지 효과 분석,” *장애와 고용*, 제24권, 제1호, pp.83-109, 2014.
- [55] 강철희, 김미옥, “여성장애인의 고용 안정 및 확대를 위한 구직화 과정 분석 연구,” *재활복지*, 제4권, 제1호, pp.1-31, 2000.
- [56] D. L. Smith, “The relationship of type of disability and employment status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Journal of Rehabilitation*, Vol.73, No.2, 2007.
- [57] 김교성,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관한 연구: 생존표본분석과 이산시간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2호, pp.253-275, 2005.
- [58] 이금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업탈출 비교분석,” *재활복지*, 제14권, 제3호, pp.175-194, 2010.
- [59] 김기태, 박병현, 강철희, “여성장애인의 취업 욕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37호, pp.33-66, 1999.
- [60] 신은경, 이한나, “여성장애인 고용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직업재활연구*, 제20권, 제1호, pp.43-63, 2010.
- [61] 전영환, 남용현, 류정진,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장애와 고용*, 제21권, 제1호, pp.187-208, 2011.
- [62] F. Z. Belgrave, “Psychosocial predictors of adjustment to disability in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Rehabilitation*, Vol.57, No.1, p.37, 1991.

- [63] 한애경, 윤혜미, "중증과 경증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영향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제22권, 제3호, pp.153-181, 2012.
- [64] 김용탁, 구인순, "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재활복지, 제17권, 제4호, pp.151-176, 2013.
- [65] 전영환,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취업 효과 분석," 장애와 고용, 제24권, 제1호, pp.5-25, 2014.
- [66] 박자경, 여성장애인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pp.53-58, 2007.
- [67] 임종호, "뇌성마비인의 고용 결정 요인,"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제9권, 제2호, 2006.
- [68] 변용찬, 오혜경, 이정선,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연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 [69] 이은미, "여성지체장애인의 구직 및 직업유지 과정에 대한 경험 연구," 장애와 고용, 제16권, 제1호, pp.67-92, 2006.
- [70] 이재열, 강상진, 방하남,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5.
- [71] 전동일, 장애인의 직업력(work history)유형과 직업유지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72] 송경일, 최종수, SPSS15를 이용한 생존자료의 분석, 한나래출판사, 2008.
- [73] 채구목, 고급통계학, 양서원, 2014.
- [74] 홍성표, 정진철, "자격취득이 장애인 재취업 및 구직기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제25권, 제3호, pp.169-196, 2015.
- [75] 안은자, "노동자로서의 장애 여성," 당대비평, 제15권, pp.164-176, 2001.

저자 소개

박 미 희(Mi-Hee Park)

정회원



- 2012년 8월 : 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15년 2월 :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 고용